

“기적을 불러온 큰 믿음 - 백부장”

마태복음 8:5-13

오늘은 예수님께서도 크게 감탄하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때 한 백부장이 나아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몹시 괴로워한다며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님, 감히 주님이 저 같은 자의 누추한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만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하인이 나을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 그들을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면서 예수님께 서도 그저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며 감탄하신 것일까요?

1.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강대국으로써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그 힘과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지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역시,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에 그 분이 꼭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도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신실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예수님에게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

셨기 때문에 그 분을 사람으로 오해한다면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엄청난 힘을 지닌 자동차라 할지라도 교통순경의 호루라기 소리 하나로 그 엄청난 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교통 순경이 하나의 인간이고 자동차에 비해 물리적인 힘은 적지만, 그에게는 ‘경찰’이라고 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혈단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분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적 권세가 그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2. 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간청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종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던져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자비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 주고 섬기자는 구호는 외치지만, 그것이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에 지날 뿐,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설교를 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속이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그 종의 병 낫기를 간청했던 백부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그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의 필요를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

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중보기도 했습니까?

첫째, 중을 치료해달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몸이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 5:15)

이렇게 백부장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서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마 8:7)

환자를 데리고 이리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서 고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는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분의 병을 고치고자 하시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둘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에게 생긴 문제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왔습니다. 그는 집에서 걱정만 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일부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4.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는 3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사리를 따지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음을 결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론적인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맹목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식이 없는 믿음입니다. 일종의 미신과도 같은, 광신적인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결코 기독교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말씀에 의지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무슨 이유와 조건이 필요한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첫번째 믿음과 같이 지성적으로 접근해서도 안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조건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와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이 곧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는대로 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하게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도 않고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경찰의 작은 호루라기는 커다란 자동차를 세우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2. 백부장의 중보기도로 인해 자신의 종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믿음에는 세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밀줄 참고) 나에게 적용해 볼 때, 내가 빠지기 쉬운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